

일주문



용주사·화성시 무한돌봄 협약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5월 10일 화성시청에서 화성시와 종교계간의 무한돌봄 사업 업무협약 협약을 맺었다.



대왕사 명상수련센터기공식 천태종 분당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은 5월 22일 명상수련센터 및 다도문화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대구 반야선원 효종 스님 개인 시화전 대구 반야선원 효종 스님은 5월 11일 시낭송CD 제작 시화전을 대구 수성아트피아 멀티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진관사, 외국인 초청 사찰음식 시연회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5월 20일 여성리더스모임인 가든클럽 회원 50여 명을 초청해 '사찰음식 시연회'를 개최한다.



일산복지관, 가정의달 체육대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능인 스님은 5월 28일 경기영상고등학교에서 제6회 어르신하마춤대회를 개최한다. (031)919-8677



해선 스님, 동국대 장학금 기부 대구 금용사 주지 해선 스님은 5월 17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인제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제3차 정기 이사회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5월 28일 서울 견지동 중앙사무국 지하교육관에서 제3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성광문 씨 교정대상 봉사상 성광문 전 전북교사단장은 5월 19일 서울신문 프레젠테이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9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봉사상을 수상했다.



원각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권기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은 6월 4일 '염불신앙의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천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나무여성, 여성인권 토론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6월 22일 서울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여성인권관련 토론회를 진행한다. (02)732-1367

기도하니 통했다

기도로 조계사 대중 움직한 정범 스님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사가 내포 가야산 성역화 사업에 협력한다니 호감이 등에 날개를 단 것 같습니다.”

정범 스님(육천사 주지·사진)은 조계사의 협력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며 내포가야산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님은 1월 13일부터 조계사 주차장 입구에서 민족문화 수호 발전을 위한 100일 천막정진을 가진 바 있다. 천막 정진 기간 동안 스님은 민족문화수호를 위해 교계가 나아가갈 방향을 더 많은 대중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100일 정진을 회향할 때쯤 조계사에서 정범 스님을 찾아왔다. 내포 가야산 성역화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알린 것이다. 스님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지방분사와 중앙 사찰이 공통 사안에 협력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조계사는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 후 조계사가 할 수 있는 '문화결사'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1982년 수덕사에 입산해 사미계를 수지한 스님에게 수덕사와 내포 가야산은 고향과 같은 곳이다. 스님은 2007년부터 내포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내포 가야산은 수년째 '내포 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충청남도도는 문화유적지 간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2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마애삼존불 앞에 터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가야산 관동도로 사업은 인근에 지방도로가 있어 형체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개발을 바라보는 정범 스님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환경적으로나 불교계로 봤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개발입니다. 문화에 대한 인식도 결여돼 있는 각종 사업들로 내포 가야산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내포 가야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2007년부터 '백제의 미소길 걷기 산행'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이용 편의성'을 근거로 추진하려는 도로 건설보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지금 있

는 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뜻이 담긴 산행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송전철탄 공사는 한국전력과 가야산연대가 공동으로 조사팀을 조직해 정기적인 활동을 펼치는 협의를 채택했다. 또한 골프장 건설 계획은 철회됐다. 이제 가야산 관동도로가 가장 큰 과제로 남은 상황에서 조계사가 지방분사와 협력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가야산 대찰 2곳이 폐사가 된 상황에서 이를 복원하고, 관련 자료들을 발



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불교계 스스로가 나서서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범 스님은 내포 가야산이 한국 불교의 고난을 상징하는 불교 성지라고 강조한다. 내포 가야산에는 '백제 수덕사 현안에 조계사 대중 동참 문화결사를 실천하는 의미도 지켜

의 미소'라고 불리는 국보 제84호인 서산마애삼존불이 위치해 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화엄심찰의 하나로 고려 광종 때 왕사였던 법인국사가 주석했던 보원사가 있던 곳이다. 그러나 보원사는 조선시대 승유역 불 정책으로 소실돼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가야산도 남연군 묘가 돼 버린 채 터만 남아 있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다. 이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마애삼존불은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며 부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정범 스님은 불자들이 내포 가야산의 이런 역사성을 이해하고, 살아있는 성지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

자들의 깨어있는 의식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국가 권력에 의해 폐사된 사원과 흔적을 오늘날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종교편향이나 불교 편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 성지가 가야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내포 가야산 살리기가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내포 가야산 살리기가 종교뿐만 아니

라 문화적 차원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환경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노력이 불교 발전을 위한 길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인간은 본래 자연과 더불어 사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개발이 진행될수록 자연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불교는 '숲의 종교'라고 불릴 만큼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숲과 문화유산을 잘 지켜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것이 스님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정범 스님은 이런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내포 가야산을 불자들에게 알리고 지킴이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해 왔다. 2007년에는 산 중턱에 천막을 치고 기도 정진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런 진심어린 활동이 조계사 앞 100일 정진에서 이어지면서 조계사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이번 협력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중앙과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지방이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사찰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는 수많은 지방사찰들이 계속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박기범 기자

82세 노인 에베레스트 도전한다

네팔 우파드하야 씨 세계 최고령 도전



지난 2008년 최고령의 나이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해 세계신기록을 세운 네팔인 민바하두르 세르찬(80) 씨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다. 사일렌드라 쿠마르 우파드하야(82) 씨다.

원로에베레스트원정대 단장 램 진다지 구루 회장은 “우파드하야 씨는 이미 베이스캠프에 도착했고 계속 등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우파드하야 씨는 4월 18일 미션을 내걸고 4월 27일 6000m지점에 있는 캠프1의 등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베이스캠프로 돌아와 등반을 진행하고 있다. 우파드하야씨는 네팔 정치사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1929년에 태어난 그는 1950년 네팔 공산당에 가입해 1952-1957년 당수가 됐다. 1986-1998년에는 네팔 외교교통장관 장관을 지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만 아니라 지성인으로 네팔에서 프리랜서 작가와 시민사회운동도 활발히 펼쳤다.

불자로서 세계평화를 발원한 그는 80세가 됐을 때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해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네팔을 알리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등반을 진행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이날, 도문 스님은 성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97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무봉사 주지 역임하고 조계사 부주지를 지냈다.

진명 스님은 정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4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 수지, 1988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불교방송 '차 한잔의 신음' 진행했고, 중국 베이징 만월사 주지로 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 재무·문화부장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20일 재무부장에 도문 스님(사진 왼쪽), 문화부장에 진명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자승 스님은 “재무부장 스님은 조계사에 소임으로 종단 분위기를 잘 알지만 재무부 실제업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빠른 업무파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문화부장 스님은 불교방송에서 8년간 방송을 진행해왔고 북경에서 포교에 진력해 그 소신이 뚜렷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문 스님과 진명 스님은 임명식 직후 “재무부는 종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중원중법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화부 전문 인력들과 주변의 부실장 스님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문 스님은 성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97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무봉사 주지 역임하고 조계사 부주지를 지냈다.

진명 스님은 정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4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 수지, 1988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불교방송 '차 한잔의 신음' 진행했고, 중국 베이징 만월사 주지로 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사·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불자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양곤 나인피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초종합대학교 건립, 식수부족 공동우물 파기, 신부출가이식, 불자어린이 학습품 지원 등으로 전달되며 봉사단 현지 방문에 맞춰 후원물품도 직접 전달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으신 후 후원금 입금과 후원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봉사단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금 입금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로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불교법인연대 설립선포식·호국안민 기원대법회

창립 선포문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속에 불법이 이 땅에 들어온 지 어언 천을백여년 우리 민족의 영고성쇠의 운명과 더불어 같이 해 왔다. 불법이 흥할 때는 흥했고 불법이 쇠퇴할 때는 사회가 불안하였으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불교는 항상 호국안민의 旗幟기치를 들고 일어섰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蒙古고고의 침략에 팔만대장경의 雕造佛事조조불사를 보았고 임진왜란에 西山서산, 四溟사명, 靈圭영규, 處英처영등 大德대덕이 구국승병을 일으켜 조국을 수호했고 仁海만해는 삼일독립선원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불교에서 이루어졌음을 본다. 이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모든 불자들은 커다란 矜持矜지와 저성이 促求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一佛弟子일불제자로 求道구도의 길에는 많은 방편의 길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정법제도를 離脫이탈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異端이단이고 魔道마도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수 많은 종파가 난립하고 한 없는 신행단체가 簇出출출하고 있음을 본다. 여기서 우리 모든 불자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많은 사상과 주의를 달리하는 종교와 종파가 난립하여 문자 그대로 多宗教社會다종교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제 불교는 대내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합불교연대의 협의체 출현이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불기 2555년 현재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주축이 되어 이사장 합의로 불교법인연대/연합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친애하는 이천만 불자여러분! 우리는 아집과 독단을 버리고 오로지 불법중흥과 호국안민을 위해 화합으로 총단결하자. 이 길만이 삼보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불기 2555(2011)년 4월 27일 발기인 일동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아 귀하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호국기원법회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불교법인대표들이 모여 21세기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의견을 수렴, 불교법인연대/연합회를 창립하고 그 선포식을 봉행하는 법석에 고명하신 법하를 초대하오니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초 청 인

불교법인연대 / 연합회

총재 덕웅 지산 회장 혜암 영월

법인이사회 이사 일동 합장

일시 : 불기 2555(2011)년 5월 31일 (음, 4.29) 화요일

· 오후 3시 30분 - 불교법인연대 선포식

· 오후 6시 - 호국안민기원제등법요식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강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문의 : 연합불교방송 011-356-3427 / 일불신문 010-6253-4936